



유럽축구 챔스 우승, 맨유나 바르샤냐

내일 새벽 3시 45분 '빅 매치'

# 지성 '꿈의 무대' 뛰는 모습 보라!

## 선발이나 교체 출격이나 관건... 亞 축구 새역사 청신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FC바르셀로나(스페인)가 '꿈의 무대'에서 유럽의 진정한 클럽 챔피언을 가린다.

'산소 탱크' 박지성(28)이 활약하는 맨유와 바르셀로나는 28일 오전 3시45분(이하 한국시간) 이탈리아 로마 올림피코 스타디움에서 2008-2009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놓고 격돌한다.

단판 승부로 치러질 결승에서 이기는 팀이 유럽 최강자로 인정받기에 양팀은 베스트 11을 가동해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박지성 출격할까=국내 축구팬들에게는 박지성의 선발 출격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출진하게 되면 박지성은 아시아인 최초로 결승에 선발로 뛰는 이점표를 세우게 된다. 박지성은 지난해 5월22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치러진 첼시와 챔피언스리그 결승 때 출전선수 명단에서 아예 빠져던 아픈 기억이 남아 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 알렉스 퍼거슨

맨유 감독이 지난해 박지성을 기용하지 않았던 것을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로 꼽으면서 "(박지성이) 이번 결승에서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며 박지성을 내보낼 것임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체력 안배 차원에서 퍼거슨 감독은 지난 25일 첼시와 프리메라리가 최종전에도 박지성을 비롯한 주축 멤버들을 내보내지 않고 쉬게 했다.

박지성으로서는 출전은 확실하지만 선발이나 교체 출진이냐가 관건인 셈이다.

▲맨유의 '더블' VS 바르샤의 '트레블'=세계 팬들의 시선도 이번 '빅 매치'에 쏠리고 있다.

맨유와 바르셀로나는 유럽 3대 빅리그에 속한 프리미어리그, 프리메라리가에서 올 시즌 각각 정상에 오른 터라 진정한 유럽 챔피언을 가리는 의미가 있다.

맨유는 2년 연속 더블에 도전한다. 더블은 정규리그, FA컵, UEFA 챔피언스리그 중에서 2개의 우승컵을 차지하는 것을 말한다. 맨유는 일찌감치 올 시즌 우승을 확정, 통산 18번째로 프리미어리그 정상에 올랐다.

1967-1968시즌 처음 꿈의 무대 주인이 됐던 맨유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도 이긴다면 1998-1999, 2007-2008 시즌에 이어 통산 네 번째로 우승컵을 안게 된다.

3년 만에 프리메라리가 정상에 복귀한 바르셀로나도 지난 14일 스페인 국왕컵(코파 델레이) 우승과 더불어 한 시즌 두 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더블에 이미 성공했다. 바르셀로나가 더블을 달성한 것은 지난 1998년 이후 11년 만이다.

2005-2006년 시즌 이후 3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리는 바르셀로나는 이번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통해 스페인 클럽 사상 첫 트레블 달성에 도전한다.

바르셀로나는 맨유보다 한 차레 적은 두 차레(1991-1992, 2005-2006시즌)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올랐다.

▲역대 전적은 맨유가 박빙 우세=두 팀은 챔피언스리그(전신 유러피언컵 포함) 무대에서 9차례 만나 맨유가 3승4무2패로 박빙의 우위를 보이고 있다.

맨유와 바르셀로나는 1983-1984시즌 UEFA 유러피언컵 8강 1차전에서 처음 만났다. 맨유는 당시 0-2로 패했지만 2차전에서 3-0으로 이겨 준결승에 올랐다.

두 팀은 이후 백승세를 보였고 최근 맞대결을 벌인 2007-2008시즌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는 맨유가 1차전에서 0-0으로 비기고 나서 2차전에 1-0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 대회 우승까지 차지했다. /연합뉴스



## 박지성 로마 입성

'산소 탱크' 박지성(28·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2008-2009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열리는 이탈리아 로마에 26일(이하 한국시간) 도착했다.

28일 FC바르셀로나와 치르는 결승전을 앞두고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 타임스가 로마발 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박지성을 주목했다. '성취를 위한 인내력'이라는 제하의 이 기사는 박지성에게 '지치지 않는' 또는 '허파가 3개인' 등의 수식어를 붙이며 "이 말들은 그의 끊임없는 질주에 대한 찬사이기도 하지만 그가 어린 시절의 나약함, 문화적 이질감, 유럽 사람들의 회의 등을 딛고 일어섰다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 챔피언스리그에서 맹활약했지만 첼시와 결승전에 뛰지 못했던 아쉬움과 올해는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그의 출진을 예고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박지성이 어린 시절 아버지가 그에게 고기를 더 잘 먹이기 위해 정육점을 운영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이밖에 2002년 한일월드컵 대회에서 활약상, 네덜란드 에인트호벤 입단 초기에 무릎 부상으로 팬들로부터 야유를 들었던 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도 종종 받았던 '생각없이 많이 뛰지만 한다'는 지적 등을 소개하며 박지성이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그라운드를 누비게 될 것을 기대했다. 한편 로마 현지에서는 우승팀에게 주어지는 트로피가 공개 전시되는 등 축구 팬들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8일 새벽 3시45분 결전의 시간을 앞두고 고대 유적지 콜로세움 앞에 전시된 우승 트로피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려는 팬들이 줄을 잇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최고의 선수는 바로 나' '독점기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4·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마라도나의 재림' 리오넬 메시(22·FC바르셀로나)가 28일(한국시간) 새벽 이탈리아 로마의 올림피코 스타디움에서 2008-2009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놓고 자존심 대결을 벌인다.

호날두와 메시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를 대표하는 최강 클럽의 간판선수로 '꿈의 무대'인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만난 것이다.

호날두는 지난 2007-2008시즌 챔피언스리그와 국제축구연맹(FIFA) 세계클럽월드컵에서 잇달아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 메시는 지난해 베이징올림픽에서 조국인 아르헨티나의 금메

## 호날두 VS 메시 골문 내가 연다

달 사냥에 앞장서며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다.

지난해 맞대결에서는 호날두의 판정승이었다. 하지만 올 시즌 성적표는 메시가 낫다. 메시는 정규리그 23골(독점 부문 4위)과 챔피언스리그 8골, FA컵인 스페인국왕컵(코파 델레이) 6골 등 37골을 수확하며 정규리그와 코파 델레이에서 바르셀로나의 더

블 우승을 주도했다. 특히 메시는 챔피언스리그에서만 8골을 사냥해 4골에 그친 호날두를 4골 차로 따돌려 사실상 득점왕을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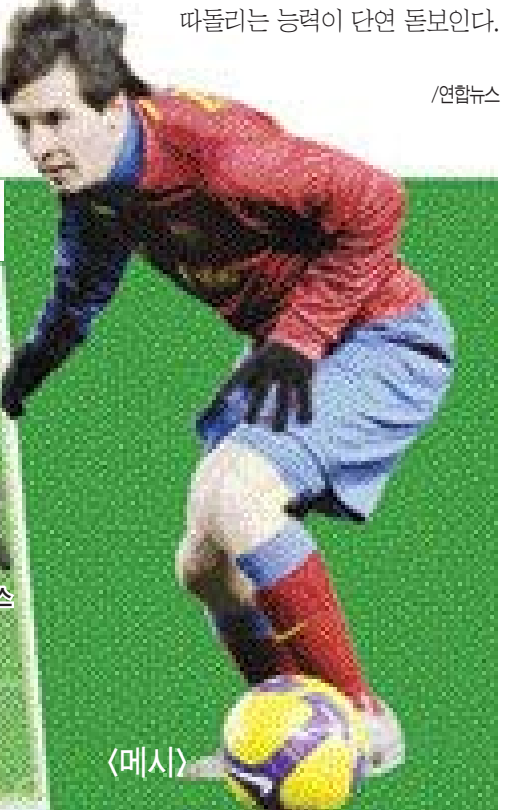
약했다. 반면 호날두는 올 시즌 상순세가 추축했다. 정규리그 18골로 최정점에서 한 골을 추가한 니콜라 아넬카(첼시·19골)에게 득점왕 타이틀을 내줬다. FA컵(2골), 칼링컵(1골), 챔피언스리그 4골을 합쳐 25골을 넣었다. 메시보다 12골이나 적다.

지난 시즌에 이은 호날두-메시 간 2라운드 대결이 기대되는 이유다.

호날두는 측면 미드필더에도 현란한 드리블과 대포알 같은 슈팅, 폭발적인 문전 돌파를 앞세워 늘라운 득점력을 가졌다. 169cm인 메시는 호날두(184cm)보다 단신이지만 천부적인 골 감각과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 수비수를 따돌리는 능력이 단연 돋보인다. /연합뉴스



<호날두>



<메시>

## 허정무호 주전경쟁 스타트

7회 연속 월드컵축구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28일 다시 모여 본격적인 주전 경쟁을 시작한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28일(이하 한국시간) 낮 12시 경기도 파주 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모여 이틀간 탐금질을 한다.

대표팀 소집 명단에 포함된 선수들이 6월7일 열린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B조 6차전 아랍에미리트(UAE) 원정경기를 앞두고 본격적인 주전 경쟁에 들어가는 것이다.

허정무 감독은 골키퍼를 포함해 포지션별로 2명 이상씩 모두 25명을 선발해 주전 다툼은 불가피하다.

A대표팀에 한 번도 뽑힌 적이 없던 유병수(인천)와 양동현(부산), 김근환(요코하마) 등 '젊은 피'들이 호출되면서 허정무 감독의 눈도장을 받으려는 경쟁은 뜨거워질 전망이다.

유럽에서 뛰는 해외파들도 이번 소집에 맞춰 속속 입국하고 있다.

J-리그에서 활약 중인 이근호(이와타)는 26일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들어왔고 오후에는 이영표(도르트문트)와 조원희(위건)가 귀국했다. 수비수 김근환은 27일 오후 입국할 예정이다.

다만 주장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을 비롯해 박주영(AS 모나코)과 오범석(사마라), 김동진(제니트), 신영록(부르사포르) 등 유럽에 진출한 5명은 소속팀 일정상 UAE 두바이에서 합류

## 남아공 월드컵 亞 최종 예선 내달 7일 UAE전... 내일 소집

하게 된다. 대표팀 소집 기간인 30일 광주 상무와 경기를 치르는 FC서울의 기성용과 이청용, 김치우 등 세 명도 31일 밤 출국해 두바이에서 허정무호에 가세한다.

한편 대표팀은 이틀간 국내서 탐금질에 들어가고 나서 30일 오후 1시50분 인천공항에서 UAE로 이동할 예정이다.

대표팀은 내달 3일 0시30분 UAE 두바이에서 오만과 평가전을 치르고 나서 7일 오전 1시15분 두바이 알 막툼 스타디움에서 UAE와 최종예선 6차전을 치른다. /연합뉴스